

미국 중서부에서 북동부, 남동부의 넓은 범위에 기록적인 대한파가 내습(來襲)하고 있다. CNN의 기상전문가에 의하면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는 「극와(極渦)」와 「북극진동(北極振動)」이다.

극와는 문자 그대로 북극과 남극의 상공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제트기류이다. 통상은 이 기류가 한기를 극지방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흐름이 약해지면 제트기류가 사행(蛇行)하여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기가 진입한다. 이러한 변동을 북극(남극) 진동이라 부른다. 진동은 1년에 몇 주기의 페이스로 반복되고 있다.

북극의 극와가 약해져 한기가 진입하는 현상은 북미나 유럽, 아시아 등 북반구 어느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다. 소용돌이가 원인이라고는 하나, 회오리나 허리케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 영향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미친다.

단, 미국 북동부에서 이번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려온 한기가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쳐 폭풍(嵐)이 발생하기도 한다. 작년 3월에는 유럽이 대한파에 휩싸여 영국 同月の 기온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한파에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설도 있다. 온난화로 추워진다는 것은 언뜻 보면 부자연스럽지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는 등의 결과, 여러 가지 기상적 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트기류의 극단적인 사행은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출처> <http://www.cnn.co.jp/usa/35042172.html>